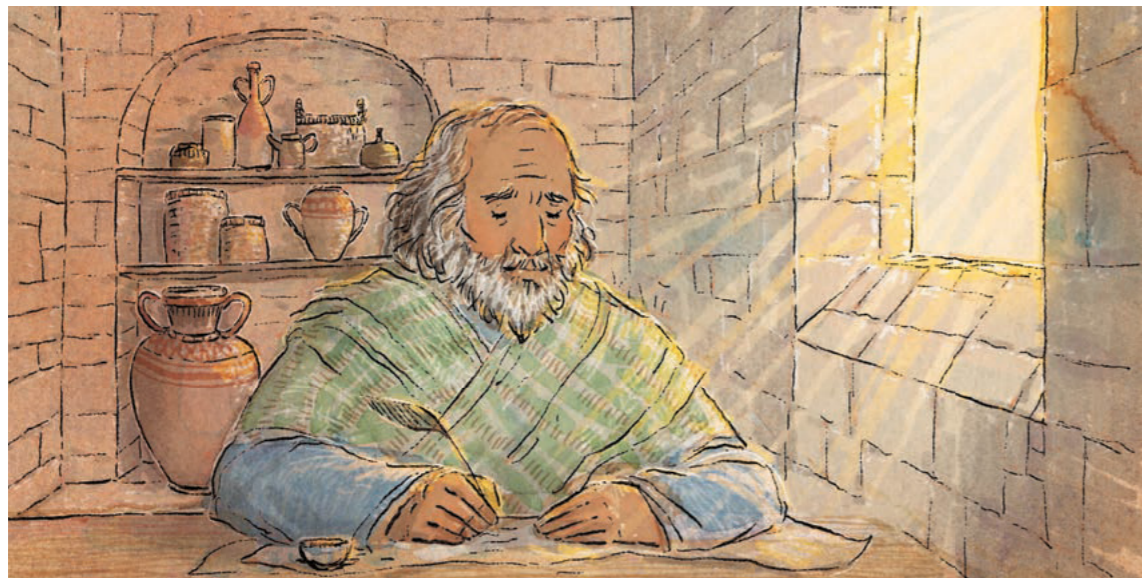


야고보가 "하나님께 구하라"라고 말해요



야고보는 사도였어요.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쳤어요.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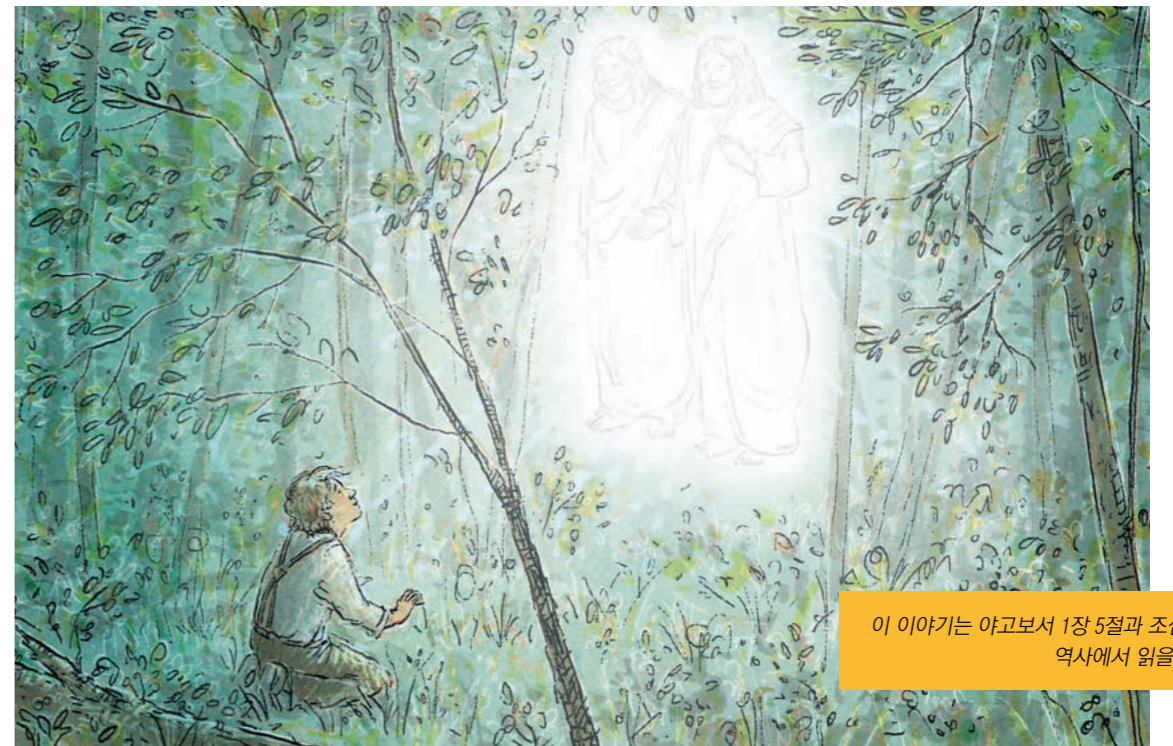
야고보는 편지에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신앙을 가지라고 말했어요. 그는 무엇이 참된지 알도록 하나님께 여쭙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.



수백 년 후, 조셉 스미스는 성경에서 야고보의 편지를 읽었어요.



조셉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느 교회에 가야 할지를 여쭙었어요.



이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5절과 조셉 스미스—역사에서 읽을 수 있어요.

조셉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!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. 그분들은 조셉이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복하도록 도우셨어요. ●

삽화: 에이프렐 스톤